어린이 책꽂이

▲치에와 가즈오=장애아들의 현실을 다룬 동화를 꾸준히 쓰고 있는 일본 작가 오카 슈조의 창작동화집.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왕따를 당하는 소외된 아이의 문제를 진지하고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왕따'사건을 두고 펼치는 아이들간의 진실게임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의 상처를 아우르고 있다. 〈시공주니어·7천원〉

▲귀신잡는 방구탐정=추리문학과 아동문학이 흥미로운 만남을 이룬 새로운 형식의 장편 추리동화다. 추리로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탐정소년 캐릭터를 내세운 작품으로 '꿈꾸는 행성'을 쓴 고재현씨가 썼다. 자기도 모르게 탐정이 된 5학년 소년 강마루와 그에게 사건 해결을 의뢰한 세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본격적인 어린이용 추리물이다. 〈창비·9천원〉

▲내가 찾는 친구=네덜란드 대표 아동문학 작가인 슈르트 카위퍼의 대표작. 출간 이후 무려 열네 개의 상을 수상했고, 네덜란드에서는 텔레비전 시리즈와 영화(1991년)로까지 만들어져 큰 인기를 모았다. 전학 간 친구 팀의 주머니칼을 돌려주기 위해 메스가 벌이는 모험 이야기로 두 주인공이 보여 준 가슴 뭉클한 우정이 감동을 준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안철수 교수가 직접 쓴 삶에 대한 이야기로 그가 오래전에 써 놓은 원고들을 추려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엮었다. MBC무릎팍도사에 소개된 이야기도 있으며, 방송에서 들려주지 못했던 가슴 따뜻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도전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도전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왜 주위사람들이 그를 행복 전도사, 행복바이러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리젬·1만800원〉

▲콩쥐엄마 팥쥐 딸='팥쥐' 하수가 '콩쥐' 새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통해 재혼 가정의 갈등과 화해를 아이의 솔직한 시선으로 그렸다. 동화 '콩쥐와 팥쥐'를 뒤집는 캐릭터인 콩쥐처럼 착한 새엄마와 팥쥐 같이 못된 딸의 이야기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 〈미래아이·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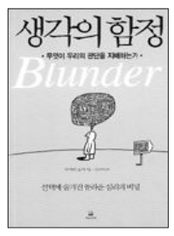
▲아기염소가 웃는 까닭='시 읽는 어린이' 시리즈 28권. '풀벌레 소리 바구니에 담다' 등 따뜻하고 익살스러운 동시를 주로 발표해온 오순택 시인의 신작 동시집이다. '달빛' '쪽배가 된 초승달' 등 꾸미지 않은 동심으로 빚어낸 순수한 동시들을 부드러운 한지 그림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청개구리·8천원〉

▲나뭇잎배타는 아이들=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글을 쓰고 있는 민종철 시인의 첫 동시집. '두부들의 노래' '살짝비'등 발랄한 이미지, 톡 쏘는 은유, 깔금한 시어로 개성 가득한 60여 편의 작품을 담았다. 서양화가 이정남씨의 아름다운 그림이 함께해 시 읽는 맛을 더한다. 〈한림·1만원〉

왜 잘못을 알고도 자신의 입장 고집할까?

생각의 함정

자카리 쇼어 지음·임옥희 옮김



'Blunder' 는 우리말로 큰 실수, 대실책 정도로 표현되며 비슷한 단어로는 'Mistake' 'Error'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처럼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결정(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용하는 7가지 위험한 심리패턴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분석한 책 '생각의 함정-무엇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는가'이 번역돼 나왔다.

저자는 미국 정책전략국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미국 국가안보 전략가이자 버클리대학 유럽학 연구소장인 자카리 쇼어. 저자는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고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7가지 인지함정으로 노출 불안, 원인 혼란, 평면적 관점, 만병통치주의, 정보집착, 거울이미지, 정태적 집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학자답게 저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식민통치 진압 논쟁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베트남 참전, 냉전 말기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레이건의 외교정책,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미사일 대응 전략, 1970년대 정신분열증과 가족병력의 연구,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긴축재정정책, 루이 거스너의 IBM 혁신 등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인지함정의 심리적 실체를 파헤친다.

저자는 인지함정이 만든 최악의 결과로 이라크 전쟁을 주목했다.

저자는 "미국이 이라크 대책에 실패함으로써 빚어낸 국가적 약화와 비극적 결정은 모든 인지함정의 결정판"이라며 "9·11 이후 세계에 대한 평면적인 관점에 빠져 듦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은 전시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인지함정의 제물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였든 민주주의가 실패한 나라든 혹은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있는 안전한 국가든지 관계없이 미군이 점령했던 첫 5년 동안 미국이 빠져들었던 인지함정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그중 단 한가지의 인지함정이라도 피할 수 있었다면, 전체 결과가 이 정도로 처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라크전쟁은 전통적인 견지에서 분명히 미국의 승리였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전략은 변화하고 있는 갈등상황에 대처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인지함정이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책은 인지함정의 심리적 실체를 파헤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의 극복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겪는 실책의 원인은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사고방식 즉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이에 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함정에 빠져들어 실책을 저지른 사람들과 그들과 비견할 만한 상황에서 요령 있게 그것에서 벗어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책에 언급된 아이젠하워, 케네디, 레이건 등 실책과 인지함정을 피한 사람들은 상상력과 감정이입 능력은 물론 지배적 견해에 도전할 수 있는 굳은 의지력이 있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는 정신적 유연성이야말로 임무를 성취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지배적 관습에 대한 의문, 환원주의 거부, 감정이입과 상상력이 뒷받침될 때에야 실책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에코의서재·1만3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방황하며 걷는다, 추억을 찾아

길을 잃어야 진짜 여행이다

최영미 지음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이 7년만에 산문집 '길을 잃어야 진짜 여행이다'를 펴냈다.

1부 '아름다움에의 망명'에는 그동안 잡지 등에 기고한 여행 관련 글이 담겨 있다. 소설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고 첫작품 '무늬와 흉터'를 펴낸 후 홀연히 떠난 프랑스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추억과 자신이 좋아하는 반 고흐의 고향 오베르쉬즈우아르를 찾은 감동 등이 담겨 있다.

또 2006년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으로 유명한 독일의 유명 여배우 한나 아굴라를 기차 안에서 만난 사연 등은 여행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인 '우연한 만남'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다.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미술 에세이 등을 펴낸 바 있는 저자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케테 콜비츠의 '어머니들' 등 다양한 미술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2부 '화가의 초상'에는 화가 박수근과 세잔, 시인 김용택과 박남준, 영화 '꽃잎'과 '일 포스티노' 등 문화예술에 관한 단상이 실려 있다. 일부 글은 지난 2000년 출판됐다 절판된 첫 산문집 '우연히 내 일기를 엿보게 될 사람에게'에 실렸던 글을 다시 넣었다.

〈문학동네·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감상 직관 키워주는 '키워드'

지식의 미술관

이주헌 지음

그림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직관이 더해질 때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미술 이야기꾼으로 이름 높은 평론가 이주헌씨가 그동안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엮은 '지식의 미술관'은 직관을 통해서 작품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능력, 즉 직관의 근육을 키워주는 고단백의 키워드 서른 개를 소개한다.

이들 키워드는 창작 양식이나 기법, 미술사, 정치·사회적 사건이나 역사적 이슈, 시장, 작가를 둘러싼 시공간 등 미술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넓은 스펙트럼에서 엄선한 키워드로, 독자가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미술 지식을 접하게 해주는 것들이다.

책은 다시 이 서른 개의 키워드를 크게 다섯 개의 지식 카테고리 제1관 '그림, 눈으로 읽을까 마음으로 읽을까', 제2관 '창조의 기원, 감동의 기원', 제3관 '감각의 미로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제4관 '그림이 시대를 그리는가, 시대가 그림을 그리는가', 제5관 '그림 바깥의 욕망을 읽어라'로 나누고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서른 개의 키워드에 뒤에 소개된 또 다른 서른 개의 확장된 지식은 그림만큼 풍성한 지식의 보고(寶庫)는 없음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여기에 180여 점의 도판이 생동감을 더한다.

〈아트북스·1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업경영의 전략 역사속에 있다

역사, 경영에 답하다

이훈범 지음

역사속에서 발견한 리더들의 경영전략을 담은 책 '역사 경영에 답하다'가 나왔다. 저자 이훈범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경영의 나침반이 역사속에 있다고 강조한다. 비지니스·조직관리·인재관리 등 기업경영 과정에서 CEO들이 부딪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역사속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리더들의 비지니스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르디아스 매듭과 알렉산드로스를 들었다. "매듭을 푸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프리기아의 왕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수백년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단칼에 베어 냄으로써 해결했다. 저자는 여기에서 '위대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리더의 경영전략을 도출해 낸다.

역사속 위인의 뒤틀린 모습도 보인다. 1세기의 시차를 두고 영국 최고의 재상 자리인 '국새상서'에 오른 프랜시스 베이컨과 토머스 모어를 비교한 대목이 나온다.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가 영국 국교회 수장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베이컨은 은인을 배반하면서까지 실리를 택해 정치를 떠난 뒤에 저술 및 연구활동으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저자는 베이컨이 비겁하게 보이지만'이길수 없으면 친구가 돼라'는 비지니스 전략의 훌륭한 사례라고 말한다. 〈살림Biz·1만5천원〉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일보 광고 원고는 이메일 또는 FAX로 접수하고 발송고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이메일: dd8111@hanmail.net
◆광주은행 : 001-107-228-80 ◆농 협 : 617-01-106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최기순(400927-1575317)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9느단 713
공 고 인:김정업, 최영란, 최충란 최미아, 최대웅, 최찬웅
한정승인수리일:2009. 9. 4.
공고기간:2009. 9. 12~2009. 11. 11.(2개월)
연 락 처:나주시 삼영동 335 부영아파트102-806 최 미 아(010-5006-6000)

분 실

자기앞수표
№ 가라58786469
금 액 : 금1,000,000원(1매)
발행일 : 2009년 6월 23일
발행인 : 남광주 농협 염주지점
№ 가나68180212
№ 가나68180213
№ 가나68180214
금 액 : 각금 100,000원(3매)
발행일 : 2009년 8월 24일
발행인 : 농협 광주시교육청 출장소
최후소지인 : 임미애(010-8604-5818)
상기 수표를 분실 공고함.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미선(730120-2637610)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09느단 2023
공 고 인:김향권, 마정임
한정승인수리일:2009. 9. 3.
공고기간:2009. 9. 12~2009. 11. 11.(2개월)
연 락 처:광주 서구 치평동 1174-3 라인동산아파트 101동 306호 김 향 권(011-9624-0502)

당뇨속보

혈당조절이 안되십니까? 당뇨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인크리스"가 도와드립니다.
특수의료용도등 식품개발(환자용식품)
생명공학박사가 자신있게 만든 제품!!
김동철 박사(생명공학)
상담/전화 010-3598-7080,1566-3957

금산공인중개사
T.681-5666 H.011-601-5354
(금호동 서광주 역 건너, 2순환도로변)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위 치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
대 지
약 2850㎡, 가격 협의결정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광주최고의 상권,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토 지
▶담양 창평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남평읍(종홀스파입구) 16,810㎡ 매 4억5천
▶북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광산구 요기동 답 3,000㎡ 매 1억3천
▶화순읍 계소리(자연녹지) 1,362㎡
▶무안군 일로읍(계획관리지역) 답 2,437㎡
▶무안군 운남면 관리지역(해변가) 전 23,600㎡
계획관리지역 전 5,140㎡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가건물
▶용봉동(2층) 매 1억9천(보 5천/월 90)
▶오치동(6층) 매 17억(보 2억/월 1천2백)
▶고시텔(5층) 매 8억5천(월 1천2백)
▶용봉동(3층) 매 4억(보 7천/월 2백)

식 당
▶월출산 입구 가든식당 7,665㎡ 매 7억5천
-펜션 부지최적
▶(담양,장성 성업중인) 대 690㎡ (매 1억5천)
대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권 원룸부지, 담양인근무인텔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2008.11월부터 2,000㎡(605평) 이상 건축시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2명 이상
채용하여야 건축허가 가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의거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꼭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또한, 제5조에 의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교육일정 2009. 9. 7.부터(월·수·금) 총60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국토해양부 지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 이명규교 수 062-670-2421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